

광주 소비심리 위축 '뚜렷'

2월중 소매판매액 1,200억 ... 전달비 4% ↓

차량 연료비 인상 등 물가상승 고통 커져

'설 특수' 분산과 물가불안 등의 여파로 지난 2월 전국의 소매판매액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2월 들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이 전달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매판매액 동향'에 따르면 2월중 전국의 소매판매액액은 19조4천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7.2% 늘어난 것이지만, 전달인 1월의 전

년동월대비 증가율(9.7%)에는 크게 못미친다.

이처럼 판매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올해 설연휴가 2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식료품 판매 등 '설 특수'가 1, 2월에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품별로는 화장품 및 비누 판매액이 27.7% 증가한 것을 비롯, ▲차량용 연료(22.4%) ▲의약품·의료용품(14.6%) ▲의류 및 신발(8.9%)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판매비중이 제일 큰 식료품은 이른 설 연휴로 인해 전년동월

비해 3.4% 감소했다.

또 차량용 연료는 가격 인상에 따라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0%로 지난해 2월(14.9%)보다 2.1%포인트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달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설날 효과' 분산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 현상이 뚜렷했다.

광주는 2월 판매액이 1천293억원에 그칠 만큼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고 있다. 이는 1월(1천353억원)에 비해 소비가 4.4%(60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도 1월 11.6%에서 0.7%로 크게 둔화됐다.

전남도 2월 판매액이 623억원으로, 1월에 비해 3.1%(19억원) 느는 데 그쳤

다. 전남은 1월에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23.4%에 달했지만 2월에는 4.3%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서울과 부산 등 7대 도시지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5천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비해 3.9% 늘어난 것으로, 인천(9.7%)과 대전(4.1%)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를 비롯한 9개 도지역은 1조6천3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에 광주·전남 등 전국의 판매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설 연휴가 지난해 17~19일에서 올해는 6~8일로 앞당겨진 데다 올해 물가 상승 추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신용대출 금리도 '수직 상승'

씨티 0.1%P·신한 0.21%P ↑

담보대출 이어 서민가계 부담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금리마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7일 뉴직장인신용대출과 영업점 직장인신용대출의 금리를 연 10.55%와 연 10.40%로 종전보다 각각 0.10%포인트 인상했다. 전문직 대출인 닥터론과 광론의 기준금리도 각각 11.05%로 0.10%포인트 인상했으며 공무원연금대출의 기준금리도 6.75%로 0.10%포인트 올렸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6일에도 신용대출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 적 있어 2주간 금리인상폭이 0.20%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양도성에급증서(CD) 연동형 신용대출 금리는 7일 현재 6.90~8.20%로 지난 2월말에 비해 0.21%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CD연동형 금리도 2월말에 비해 0.21%포인트 상승했으며 1년 고정형의 경우 0.2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이번주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는 6.06~7.66%로 4주동안 0.23%포인트 올랐으며 3년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는 2월18일에 비해 최근 두달새 0.47%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인하 등 기준금리 상승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공무원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0.40%포인트 인상했던 하나은행이 지난달 24일 0.50%포인트 낮추는 등 일부 은행은 고객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공·토공, 인원·조직 슬림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 철도공사 여객·화물 분리 '가닥'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시키고 철도공사는 여객부와 화물부문을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공사·토지공사 등도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만 남기는 등 인원과 조직이 슬림화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과 조직을 줄이기로 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방향은 부채 감축과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0년 이후에 민영화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 민영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영화를 염두에 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공공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일부 지방공공에 대해서는 외국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여객업무와 화물업무를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철도공사의 기능·운영해 보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화물부문이 위축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일부에서 철도공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국토부는 당분간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초미의 관심인 주택공사와 투지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향후 통폐합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습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줄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삼성 스마트폰 출시 삼성전자는 2Mbps 속도로 업로드를 지원하는 HSUPA 스마트폰(SCH-M470)을 7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영상통화는 물론 웹브라우징과 푸시 메일, 구글 검색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200만 화소 카메라와 아이피피, 블루투스 2.0 등의 기능을 갖췄다. /연합뉴스

현대차, 中 2공장 준공

연간 60만대 생산 능력

현대차가 중국에서 연간 6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현대차 중국 생산법인 베이징현대차는 8일 베이징시 순이(順義)구에서 연산 30만대 규모의 베이징 제 2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귀진봉 베이징시 시장과 부하오 베이징시 부시장 등 현대차 임직원과 중국 정부 주요 인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기존 베이징 1공장(30만대)을 합쳐 중국에서 연산 6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장수성 엔지니어를 위대한 연산 43만대의 기아차 공장을 더하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 중국에 연간 103만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됐다.

베이징현대차는 2공장 생산을 내년까지 20만대 규모로 유지한 후, 2010년부터 완전가동에 들어가 30만대로 생산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현대차는 베이징 현대 2공장 준공을 계기로 2010년 현지 판매를 60만대까지 늘리고 기아차도 현지공장을 최대한 가동해 같은 해에 44만대를 팔아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 이 시기에 판매 104만대를 달성, 중국 승용차 시장점유율 13%를 차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토지수용 '부재지주' 범위 확대

사업인정고시 1년전부터 미거주자 까지 포함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재지주의 범위를 지방세 법과 일치시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부재지주가 많아진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

아야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 보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했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제 쌀값 연일 최고치

100파운드당 21달러 ... 1년새 2배로

쌀 생산국 수출통제 식량위기 우려

국제 쌀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식량위기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유엔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쌀 가격은 2.4% 오른 100파운드당 21달러에 달해 지난 3일 이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쌀값은 1년전에 비해 배로 올랐고 2001년 이후로는 5배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쌀값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곡물투자를 하고 있는 파피뉴의 최고경영자인 톨랜드 캔슨은 쌀 가격이 향후 2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인구 중 30억명의 주식인 쌀은 전 세계 식량 수요가 3%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인도·베트남 등이 자국 내 공급을 위해 쌀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부족 예상에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왔고 이로 인한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2일 올해 세계 쌀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1.8%

(1천200만)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요 쌀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수급을 감안해 수출을 전례없이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올해 쌀 수출은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도 식량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위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등 국제적 불안이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식량지원을 위한 원조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조지트 쉬런 사무총장은 이날 "기아와 새로운 국민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 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中, 5년안에 日 뛰어 넘고

세계 2위 '경제대국' 부상

S&P 보고서 중국이 5년안에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최대 경제체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예측했다.

S&P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며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일본을 넘어서 이 지역의 최대 경제체제이자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올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전 세계적 신용경색으로 아태지역도 저성장 충격이 가해지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다소 주춤, 이 지역 22개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본의 신교(新交)총합연구소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이르면 2009년, 가장 늦어도 2012년에는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8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은행간 거래기준이 되는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0015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날의 7.0020위안에 비해 다시 소폭 절상된 것이다.

/연합뉴스

국내 인터넷 이용률 80% 넘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장조사업체인 코리아클릭(koreanclick.com)은 글로벌 조사기업인 TNS코리아와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 전국의 만 7~65세 남녀 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80.0%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는 3천 256만명에 달한다.

특히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79.7%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50대 이상은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40.8%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이용자 중 94.8%가 가정에서, 사무직 인터넷 이용자 중 97.0%가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中 진출 기업 3년 지나야 순익 가능"

수출입銀 업체 933곳 조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순익을 내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중국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 중 2006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9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영업을 시작한 기업의 경우 73.0%가, 2006년 영업시작 기업은 87.6%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 진출기업 중 적자기업의 비중은 49.0%였으며 2003년 진출기업은 36.3%, 2002년 진출기업은 32.4%, 2001년 진출기업의 경우 적자기업 비중이 26.1%까지 줄어들었다.

조사대상기업 중 2004년부터 3년간 연속해서 결산서를 제출한 기업 264곳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들 기업 중 2006년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29.5%로 나타났다. 3년 연속 결산서를 제출한 기업 중 적자기업의 비중은 2004년 50.8%에서 2005년에는 45.8%로 낮아지다 2006년 급감했다.

/연합뉴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스텝스*	세탁기 개발부서 품질관리(OA)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0	062-351-6052
리엔엘*	인테리어설계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234-0066
리빙프라자*	삼성디지털프리카 매장내 전자제품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375-8407
호비pc프리카	LG파워콤 영업팀 및 고객관리팀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1	062-444-2233
동부화재 광주 고객센터	[광주]TM센터 Open)본사직영 TMA(원/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220-8500
시흥고속	사무일번관리, 현장관리 보조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2	062-956-0223
다해전력	태양광발전주력 현장시공 전기공사 시공 보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2	062-572-0622
씨월드넷	KT 홍보 및 영업사원, 경리/리비트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2	010-7336-8282
씨티엘	[광주] 정비사 (전기,전자,기계 전공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31-205-5300
에이치디스틸	광주지역 철강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4/13	02-2026-8384
대창 E&T	SK텔레콤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4	062-383-6831
남해종합개발	[건축/기계/전기/사무관리팀]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20-2514
H&T	SK텔레콤(정규직/주5일) 1142버선도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4/15	062-350-6333
DAC	전남 광주지점 영업관리 대졸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31-467-652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